

지방은행, 지자체 금고 수성했지만... 시중은행 경쟁 속얕이

부산·광주은행, 지자체 금고 사수 대형은행, 막대한 자금력 앞세워 비수도권 지자체 금고 공략 강화 협력규모도 커져 정면대결 부담

주요 지방은행이 자치단체 금고를 다 시 따냈지만 앞으로 시중은행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은 최근 진행된 부산시·광주시 금고 은행 입찰에서 금고 채유치에 성공했다. 시중은행이 영업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 금고 공략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뤄낸 쾌거지만 시중은행이 자본력을 앞세워 지자체 금고 입찰을 늘리고 있는 만큼 지방은행의 고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7일 광주시청에서 금고 지정심의 위원회를 열고 1금고 은행으로 광주은행을, 2금고 은행으로 농협은행을 선정했다. 약정 기간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4년 동안이다.

입찰 결과에 따라 광주은행은 60년 연속으로 광주시 금고를 담당하게 됐지만 금융권에서는 광주은행이 앞으로



광주광역시는 지난 7일 차기 지자체 금고 은행으로 광주은행을 재선정했다. /광주광역시

도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있다. 시중은행이 영업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 금고 입찰 참여를 늘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각 지자체가 3~4년마다 선정하는 금고 은행은 지자체별로 매년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전담 관리하는 은행이다. 막대한 자금을 연 1% 미만의 낮은 금리로 유치할 수 있고, 급여 이체도 담당하게 되는 만큼 장기 거

래 고객도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영업 확대를 꾀하는 대형은행들은 적극적으로 지자체 금고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이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 금고 입찰은 156건에 달하며, 낙찰률도 94.2%에 육박한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행은 51건의 비수도권 지자체 금고 입찰에 참여해

47%를 낙찰받는 데 그쳤다.

특히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비수도권 광역시 금고의 경우, 각 지자체의 연간 예산이 수조원(부산 16조원·대구 10조원·광주 8조원·울산 5조원)에 달하고 지역 내에서 갖는 상징성도 큰 만큼 시중은행 또한 적극적으로 입찰을 늘리고 있다.

최근 광주시 금고 입찰에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이 대거 뛰어들었고, 지난달 부산시 금고 입찰에도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참여해 부산은행을 위협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진행된 울산광역시 금고 입찰에서도 경남은행이 국민은행을 간발의 차이로 꺾고 금고 은행 지위를 사수하기도 했다.

거점지역 내 주요 금융기관이란 상징성이 있는 만큼 각 지방은행은 광역시 금고를 사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 아래에서는 이러한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은 총 100점의 배점 가운데 89점을 금리·신용도 등 공통항목으로, 11점을 자율 지정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각 은행이 공통 항목에서 비슷한 점수를 받는 만큼 지자체 출연금 규모와 지역 내 공헌도 등이 포함되는 자율 지정 항목에서 당락이 갈린다.

아직까지는 각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내 공헌도를 바탕으로 금고 은행 지위를 지켜내고 있지만, 지역 내 인구 및 산업 유출에 따라 각 지자체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협력사업비 규모가 주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금력 차이가 큰 대형은행과의 정면대결이 어려운 만큼, 각 지방은행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지역 내 공헌도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선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협력사업비를 비롯한 자본력에서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밀릴 수밖에 없고, 시중은행이 제시하는 협력비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각 지방은행들이 금고 선정 과정에 인센티브를 달라고 당국에 요청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점포 줄이는 저축은행, 업황악화에 체질개선 속도

작년말 대비 점포 11곳 줄어 265곳 인력도 줄이고, 비대면 창구 강화

저축은행이 점포와 임직원을 줄이면서 체질개선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업황이 나빠진 만큼 효율성에 방점을 둔 행보다. 저축은행중앙회도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일선 저축은행에 발맞추는 모양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의 점포는 265곳이다. 지난해 말(276곳) 대비 11곳 줄었다. 임직원도 225명 줄어든 9656명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의 임직원 수가 96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0년 말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올해 지점을 가장 많이 줄인 곳은 SBI·OK저축은행이다. 각각 2곳씩 영업을 중단했다. 이어 DB·신한·용창·JT저축은행 등 4곳이 지점을 1곳씩 줄였으며 폐폐저축은행과 더케이저축은행



Chat GPT가 생성한 '디지털전환' 이미지.

은 지역사무소와 출장소를 1곳씩 없다. 비대면 창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점포를 정리했다.

인력도 감소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 주요 저축은행 5곳(SBI·OK·웰컴·한국투자·애뮤온저축은행)의 임직원은 3109명으로 전년 말(3192명) 대비 83명 줄었다. 전체 저축은행 이탈 인력의 36.8%를 차지한다. 이 중 임직원이 가

장 많이 줄어든 곳은 OK저축은행이다. 반년간 30명 감소했다. 이어 ▲웰컴저축은행(22명) ▲한국투자저축은행(14명) ▲애뮤온저축은행(9명) ▲SBI저축은행(8명) 순이다.

업계에서는 지점과 인력이 줄어드는 배경에는 디지털전환(DT)이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인프라 확보 과정에서 계약직 인력을 대거 채용했으며 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 환경에 은행, 증권사로 이직도 활발하다. 중장년층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이 높아진 데다 미래세대 확보를 위해선 디지털환경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뿐 아니라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은행권도 대면 창구는 줄이고 있다"며 "업황 악화에 효율성을 요구하는 기조가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4대 금융지주(KB·하나·신한·우리금융지주)의 점포수는 5982곳이

다. 6개월간 18곳 감소했다. 해당 기간 해외 점포는 6곳 늘어났다. 국내 지점만 살펴보면 24곳 감소한 셈이다.

저축은행중앙회도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별도의 전산망이 없는 만큼 중앙회 차원의 디지털전환이 요구된다. 지난 8월 저축은행중앙회는 네트워크 APT장비 고도화 추진을 위한 입찰공고를 발표했다. 디지털 보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저축은행은 효율화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여·수신 규모를 축소하는 등 영업 여건이 넉넉치 않은 만큼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플랫폼 강화는 물론 신용평가모형 및 보안 영역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권의 디지털전환은 금융권 내에서도 늦은 편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KB국민카드

제10회 봄 프로젝트 성료 청소년 작가 24명 후원

KB국민카드가 발달장애 청소년 작가 24명을 후원했다.

KB국민카드는 '제10회 봄(Seeing&Spring)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봄 프로젝트는 발달장애 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후원을 시작했다. 올해는 '떠오르는 꿈'을 주제로 주요 작품 50점을 공개했다.

이번 후원 대상은 밀알복지재단과 미술관련 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지난 2월 16일까지 모집했다. /김정산 기자

우리은행

국내 첫 NFC 기능 활용 TAP 이체 서비스 출시

우리은행은 10일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최초로 NFC(Near Field Communication·근거리무선통신)를 활용한 오프라인 간편이체 서비스 'TAP(탭) 이체'를 출시했다.

'TAP이체'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간편이체서비스다. 사용자간 스마트폰 뒷면을 서로 맞대면 별도의 계좌를 입력할 필요 없이 사전에 등록된 우리은행 계좌로 금액을 송금할 수 있다. 우리은행 계좌 보유 고객은 삼성전자 모바일 결제서비스인 삼성윌렛 앱 안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계좌번호를 일일이 상대방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어 계좌번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착오송금의 위험이 없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서울 집값 29주 연속 ↑... 상승폭은 둔화

래미안원베일리, 두달새 4.5억 ↑ 매매수급지수는 4주째 하락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9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같은 0.1%였고 3주째 상승폭이 둔화했다. 매매수급지수는 4주째 하락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0% 오르면서 29주 연속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에서 서대문구

(0.15%→0.13%)가 북아현·홍은동, 중구(0.12%→0.13%)는 신당·황학동 교통여건 양호 단지, 마포구(0.15%→0.17%)는 신공덕·염리동 대단지, 용산구(0.14%→0.16%)는 한강로·이촌동, 성동구(0.14%→0.15%)는 성수·응봉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서초구(0.17%→0.15%)는 반포·잠원동 대단지, 강동구(0.06%→0.11%)가 명일·압사동 주요 단지, 강남구(0.18%→0.20%)는 개포·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영등포구

(0.13%→0.14%)는 당산·문래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도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북한산더샵'은 9월 전용면적 59㎡가 9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매매가격(9억 5000만원) 대비 2000만원 상승했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지난 8월 전용면적 84㎡가 47억원에 거래되면서 2개월 만에 4억 5000만원 올랐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하락했다. 10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1로 전주(101.2)보다 0.1포인트 내렸다. 9월 셋

째 주부터 4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가격 상승세 둔화로 매수 관망심리가 견고해지며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다만 신축·학군 수요 등에 따른 국지적 상승거래가 관측되면서 전기 상승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지원 기자 jiw13@